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동기와의 관련성

강영숙¹, 황선경^{2*}

¹부산여자대학교 간호과, ²부산대학교 간호대학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Young Suk Kang¹ and Sun-Kyung Hwang^{2*}

¹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²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부산시 소재 3년제 간호대학 2개교와 경상남도 소재 3년제 간호대학 2개교에서 간호대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진로동기, 전공만족도와 진로동기, 자아존중감과 진로동기 간에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 = .48$)와 자아존중감($\beta = .23$)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34.5%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진로동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motivation among 369 college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18.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motiv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between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The predictors on career motivation were major satisfaction ($\beta = .48$) and self-esteem ($\beta = .23$) and the model explained 34.5% ($F=17.84$, $p<.001$) of the variance. The findings indicate the following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on the career motivation and to develop the career motivation programs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areer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실현되어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1], 간호교육의 질적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3년제 간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들 3년제 간호대학생의 30%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합격위주와 전공학과의 높은 취업전망으로 인한 부모 및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Kyung Hwang(Pusan National Univ.)

Tel: +82-51-510-8340 email: skhwang@pusan.ac.kr

Received April 10, 2013

Revised (1st May 6, 2013, 2nd May 23, 2013)

Accepted July 11, 2013

친지의 권유로 진학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한 전문대학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생활은 4년제 간호대학생의 생활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입학초기에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전공에 대한 탐색 기간을 갖는 4년제 대학생들과 달리 전문대학생은 입학할 때부터 전공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곧바로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3]. 특히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은 첫 학기부터 해부학, 생리학, 기본간호학 및 실습 등의 전공기초과목을 배우게 되어 용어가 생소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과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4].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진로탐색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즉, 전공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함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와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입시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대한 탐색없이 과중한 전문직 교육과정에 들어감으로써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면, 재학중 또는 졸업 후 전공을 포기하게 된다[6].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뿐 아니라 임상실습에 임해야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역할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접하게 되고 [7], 이로 인하여 흥미를 잃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부적응을 경험하고 진로정체감에 혼란을 겪게 된다[8]. 나아가 학교를 졸업한 신규간호사가 임상이라는 직업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충격(reality shock)을 해소하지 못하여 전문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9].

전문대학 간호과는 건강보험 데이터 베이스 2011년 기준 취업률 80.1%로 전문대학 전체 평균 6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10], 3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4년제 간호대학생과 경쟁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학업이나 진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7]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을 통하여 자신을 바르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도록 돕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바르게 확립시켜 성취욕구가 높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며 적응력과 자율성을 갖춘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1].

현재 간호사들의 진로가 병원임상 중심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해외취업의 기회도 많아짐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12] 자아존중감, 전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과과정에서 전문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현재 3년제에서 4년제로 가는 과도기 과정에서 학습이나 진로에 더 많은 갈등에 놓일 수 있는 3년제 학생들에 대한 학과 적응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13],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14]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15]. 간호대학생 이외에도 사회복지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와 관광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정체성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동안 진로동기는 국내의 진로관련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변인이었다[18].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진로정체감을 포함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한 동기로서 진로동기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진로동기의 개념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유연성을 반영하는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성취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인 진로통찰력(career insight)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신을 규정하는 정도인 진로정체성(career identity)으로 구성된다[19]. 진로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개인의 동기와 가치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진로성공에 영향을 준다[20]. 진로동기는 단순히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취업 후 자신의 전문성 개발과 경력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3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동기에 대한 탐색은 취업의 선택과 방향 뿐만아니라 직업의 만족과 이직[8]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21] 간호과 학생들의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

가 있으며[22], 진로정체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8,23]

진로와 전공학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대학생의 진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공학과에 만족하는 대학생의 경우 불만족하는 대학생에 비해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편안한 상태로 진로결정-이상형의 유형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24]. 또한 전공만족도가 진로의식형성과 직업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오늘날 대학생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진로동기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사전 연구를 통해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관한 연구로 진로정체감[8,26,27], 진로자기효능감[23,28-30], 미래의 진로[31]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진로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진로동기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 정도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산의 3년제 간호대학 2개, 경상남도의 3년제 간호대학 2개의 간호대학생 36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Rosenberg[32]가 개발하고, 전병제[32]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전병제[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에 관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선영[3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으로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의 4개 영역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이선영[34]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70에서 .84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4이었다.

2.3.3 진로동기

진로동기는 김보경[35]이 개발한 도구로 세 가지 영역인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의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동기는 내용상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수 3명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보경[3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정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전공동기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전공동기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전공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369명으로. 성별은 남자 43명(11.7%), 여자 326명(88.3%)으로 여자가 많았고, 나이는 21-22세가 171명(46.3%)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35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학과성적은 중으로 221명(59.9%)이, 경제상태는 276명(74.8%)이 중으로 평가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6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 Gender | Male | 43 | 11.7 |
| | Female | 326 | 88.3 |
| Age | ≤20 | 103 | 27.9 |
| | 21-22 | 171 | 46.3 |
| | ≥23 | 95 | 25.8 |
| School year | Freshmen | 135 | 36.6 |
| | Sophomore | 117 | 31.7 |
| | Junior | 117 | 31.7 |
| Academic Grade | High | 59 | 16.0 |
| | Middle | 221 | 59.9 |
| | Low | 89 | 24.1 |
| Economic state | High | 13 | 3.5 |
| | Middle | 276 | 74.8 |
| | Low | 80 | 21.7 |

3.2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32±0.43점, 전공만족도는 3.84±0.53점, 진로동기는 3.71±0.5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N=369)

| Variable | M±SD | Minimum | Maximum |
|--------------------|-----------|---------|---------|
| Self-esteem | 3.32±0.43 | 1.90 | 5.00 |
| Major satisfaction | 3.84±0.53 | 2.41 | 5.00 |
| Career motivation | 3.71±0.57 | 1.56 | 5.00 |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자아존중감(p=.001)과, 전공만족도(p=.006)에서 유의하였다. 연령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진로동기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사후검증 결과 23세 이상이 20세 이하와 21-22세 보다 더 높았다. 학년별 차이는 자아존중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증한 결과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다(p<.001). 학과성적(상, 중, 하)에 따른 차이는 전공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경제수준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의 집단보다 높았고, 전공만족도에서는 경제상태가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보다 높았고, 중의 집단은 하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3.4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서 상관계수는 .41 (p=.001), 자아존중감과 진로동기에서 상관계수는 .37(p<.001), 전공만족도와 진로동기에서 상관계수는 .57(p<.001)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진단에서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가 .835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가 1.198로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1.836으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Self-esteem | | Major satisfaction | | Career motivation | |
|-----------------|---------------------|-----------------------|---------|-----------------------|---------|-----------------------|--------|
| | | M±SD | t/F(p) | M±SD | t/F(p) | M±SD | t/F(p) |
| Gender | Male | 3.82±0.49 | 79.26 | 3.64±0.58 | 7.71 | 3.79±0.55 | 0.96 |
| | Female | 3.26±0.38 | (.001) | 3.88±0.52 | (.006) | 3.70±0.57 | (.328) |
| Age | ≤20 _a | 3.25±0.28 | 7.47 | 3.82±0.49 | 0.22 | 3.62±0.52 | 7.36 |
| | 21-22 _b | 3.29±0.45 | (.001) | 3.87±0.48 | (.804) | 3.67±0.57 | (.001) |
| | ≥23 _c | 3.47±0.49 | | 3.84±0.66 | | 3.90±0.57 | |
| | <i>Scheffe</i> | <i>a<c, b<c</i> | | - | | <i>a<c, b<c</i> | |
| School year | Freshmen | 3.24±0.32 | 8.85 | 3.87±0.54 | 0.68 | 3.71±0.59 | 0.15 |
| | Sophomore | 3.29±0.44 | (<.001) | 3.87±0.51 | (.510) | 3.70±0.61 | (.862) |
| | Junior | 3.46±0.50 | | 3.80±0.56 | | 3.74±0.50 | |
| | <i>Scheffe</i> | <i>a<c, b<c</i> | | - | | - | |
| Academic grade | High _a | 3.34±0.68 | .39 | 3.95±0.67 | 9.76 | 3.76±0.54 | 2.58 |
| | Middle _b | 3.31±0.34 | (.667) | 3.91±0.48 | (<.001) | 3.75±0.60 | (.077) |
| | Low _c | 3.35±0.42 | | 3.64±0.51 | | 3.60±0.48 | |
| | <i>Scheffe</i> | - | | <i>a>c, b>c</i> | | - | |
| Economic state | High _a | 3.92±0.77 | 14.68 | 4.33±0.32 | 10.70 | 3.85±0.27 | .398 |
| | Middle _b | 3.29±0.38 | (<.001) | 3.88±0.51 | (<.001) | 3.71±0.57 | (.672) |
| | Low _c | 3.36±0.45 | | 3.67±0.58 | | 3.70±0.58 | |
| | <i>Scheffe</i> | <i>a>c, a>b</i> | | <i>a>b>c</i> | | - | |

[Table 4] Bivariat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N=369)

| Variable | Self-esteem | Major satisfaction | Career motivation |
|--------------------|-------------|--------------------|-------------------|
| Self-esteem | 1 | | |
| Major satisfaction | .41(.001) | 1 | |
| Career motivation | .37(<.001) | .57(<.001) | 1 |

Data were presented with r(p).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motivation (N=369)

| Variable | B | SE | β | t | □ |
|--|-----|-----|-----|------|-------|
| Constant | .10 | .67 | | 0.14 | .887 |
| Self-esteem | .35 | .17 | .23 | 2.05 | .045 |
| Major satisfaction | .67 | .16 | .48 | 4.30 | <.001 |
| $R^2=.365, \text{Adj. } R^2=.345, F=17.84(p<.001)$ | | | | | |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진로동기에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전공만족도($\beta=.48$)가 더 강력한 예측인자였으며, 이 두요인의 총 설명력은 34.5%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진로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32±0.43점으로 나타나 정효주, 정향인[36]의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 2.8±.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에서의 향상된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간호 전문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7]. 따라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간호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는 3.84±0.5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전문대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미현, 신미아[12]의 연구에서 3.79±0.49점, 3, 4년제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인오, 이경원[13]의 연구에서 3.61±0.53점,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정은 등[6]의 연구에서 3.54±0.49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과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

므로 이전의 연구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전공선택은 개인의 대학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37], 전공에 대한 확신의 부족은 학업성취와 대학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38].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때 전공의 이해와 더불어 신중한 선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간호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로동기는 3.71±0.57점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을 통합한 진로동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진로동기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된 진로정체감과 비교하였다.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희, 이규영[8]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2.67±0.5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3학년이 1, 2학년 보다는 진로동기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태도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더 성숙해가는 양상을 보이고[39],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40].

신규간호사가 간호전문인으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8]고 하였다. 이는 특히 3년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진로정체감 뿐만 아니라 진로통찰력과 진로탄력성을 포함하는 진로동기를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22]이나 멘토링프로그램[23]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뿐 아니라 진로탐색프로그램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동기의 각각의 관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희, 이규영[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 권혁진[41]과 조철규[42]의 연구에서도 학과만족이 진로정체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설명력도 높았다. 두 요인

중에 진로동기에 더 강력한 예측인자는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1]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진로태도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공선택 확신, 비판적 사고력,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난 결과[30]와는 유사하였다.

3년제 간호대학생들에게 전공만족도가 진로동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동기는 진로결과와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활동들이 활발해짐으로 간호 학생들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중심의 실습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을 접할 수 있는 실습과정과 사회,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서 직업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교과과정 개발을 통해[43] 간호대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도와야할 것이다.

References

- [1] K. S. Jung, "Department of Nursing of College Operate a Four-year Curriculum from Next Year", *The Korean Nurse Association News*, A1, 2011.10.27.
- [2] M. M. Kim, *The Influences of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n Department Satisfaction Levels and Career*. pp1-3,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3] J. A. Song, J. S. Jang,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5, 1, pp119-144, 2010.
- [4]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ological Mental Health Nursing*, 15, 4, pp409-419, 2006.
- [5]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 1, pp 83-91. 2010.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6] J. E. K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Eom, H. A. Lee, N. R. Jang, D. E. Jang, "The Relation

-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wha Nursing*, 45, pp29-44, 2011.
- [7] H. S. Park, Y. J. Bae,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ological Mental Health Nursing*, 11, 4, pp621-631, 2002.
- [8]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 2, pp163-173, 2006.
- [9] J. E. Duchscher, "Transition Shock: The Initial Stage of Role Adaptation for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 5, pp1103-1113,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8.04898.x>
- [10]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formation Servic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2012 Retrieved may 10, 2010 fro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web site, <http://www.academyinfo.go.kr/search/indexGuideSearch/indexGuideSearchRD.jsp>.
- [11] B. N. Park, J. S. Park, J. R. Lee,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mong Nursing Juni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34, 2, pp153-164, 2009
- [12] B. H. Son, Y. M. Kim, I. G. Jun, "A Study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 3, pp240-249, 2011.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1.20.3.240>
- [13]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2, pp170-177, 2006.
- [14] H. Y. Jeong,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pp43-44, Kyungung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10.
- [15]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pp38-39,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16] Y. S. Kang, and E. J. Lee,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Major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in Jeon-buk Area. *Korean Journal Social Welfare Research*, 15, pp1-22, 2006.
- [17] S. M. Park, *The Effects of Major-related Job-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pp72-73,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2011.
- [18] H.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 4, pp199-220, 2012.
- [19] M. London,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4, pp620-630, 1983.
DOI: <http://dx.doi.org/10.5465/AMR.1983.4284664>
- [20] R. Day, T. D. Alle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égé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1, pp72-91, 2004.
DOI: [http://dx.doi.org/10.1016/S0001-8791\(03\)00036-8](http://dx.doi.org/10.1016/S0001-8791(03)00036-8)
- [21] R. F. Baumeister, J. D. Campbell, J. I. Krueger, K. D. Vohs, "Exploding the Self-esteem Myth", *Scientific American*, 292, 1, pp84-91, 2005.
DOI: <http://dx.doi.org/10.1038/scientificamerican0105-84>
- [22] J. C. Le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Learning Environment Generated by Science Teachers upon Students' Affective Perception and Cognitive Learning*. pp51-5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1998.
- [23] M. A. Kim, J. Y. Lim, S. Y. Kim, E. J. Kim, J. E. Lee, Y. K. Ko,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ological Mental Health Nursing*, 13, 4, pp383-391, 2004.
- [24] S. C. Jang,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pp101-104, Konkuk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3.
- [25]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p82-83,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92.
- [26] Y. H. Kwon, C. N. Kim,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3, 2, pp216-229, 2002.
- [27] Y. M. Yoon, M. H. Suk, "Effect of a Program to Improve Adaptation to Department and Career Ident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anagement Consulting Journal*, 12, 1, pp185- 203, 2012.
- [28] J. S. Park, K. S. Back, B. N.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Guidance Program on Learning Motivation, a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Self-efficacy for Nursi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10, 3, pp173-184, 2009.
- [29] K. S. Bang, M. H. Jun, H. S. Kim, H. M. Son, J. H, Kang, S. J. Yu, M. K. Kwon, J. S.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1, pp22-31, 200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9.15.1.022>
- [30] H. Y. Koo, H. S. Park,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 2, pp373-385, 2005.
- [31] K. S. Bang, J. K. Cho,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 1, pp88-97,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88>
- [3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3]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ournal*, 11, pp107-124, 1974.
- [34] S. Y. Lee, *Research 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pp18-22,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9.
- [35] B. K. Kim,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of Undergraduates*. pp32-39,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36] H. J. Jung, H. I. Chung,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ological Mental Health Nursing*, 21, 3, pp188-19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37] C. T. Logu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pp68-72,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2005.
- [38] J. J. Plaud, R. W. Baker, J. E. Groccia, "Freshman Decidedness Regarding Academic Major and Anticipated and Actual Adjustment to an Engineering College", *National Academic Advising Association Journal*, 10, 2, pp20-26, 1990.
- [39] E. M. Lim,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Career Maturation", *Journal of Counseling*, 5, 3, pp667-680, 2004.
- [40] E. K. Lea, H. S.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 1, pp109-120, 2002.
- [41] H. J. Kwon, *The Relations among the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pp44-4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2010.
- [42] C. K. Cho, *The Effect of Guard Majoring Students Satisfaction on Department to Future Identity and Work Expectation*. pp65-67,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2011.
- [43]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y Society*, 13, 3, pp285-292, 2007.

강 영 속(Young Suk Kang)

[정회원]



- 2005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행위, 발반사마사지, 만성질환 간호

황 선 경(Sun-Kyung Hwang)

[정회원]



- 1991년 5월 : University of Akron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0년 9월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전임 연구원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근거중심실무